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위해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전국 7개 리사이클센터 전주시 다문화가정 100세대 세탁기 선물

전국 7개 리사이클센터가 전주시 다문화가정 100세대에 세탁기를 선물했다. 2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청강당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7개 리사이클센터 대표, 가수 김경호, 최재훈, 전 야구선수 김동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종성 회장, 다문화 가정 등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Recycle센터와 전주시가 함께하는 세탁기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국 7개 리사이클센터는 전주시 관내 다문화가정 등 100세대에 7,000만원 상당의 세탁기 100대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가수 김경호와 최재훈, 전 두산베어스 김동주 야구선수 등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진축구볼 30개를 나누주는 행사도 진행됐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리사이클센터 소개 동영상 시청과 전주시 결혼이주여성들의 변경술과 세계 전통춤 등 특별공연도 마련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전국 리사이클센터의 따뜻한 지원에 감사에 표한다”며 “앞으로 결혼 이민자 등 전주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사이클센터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 서비스’ 등을 통해 회수된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TV 등을 자체 공정을 통해 새로운 제품 원료로 재탄생 시키는 등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친환경기업이다.



전국 7개 리사이클센터가 전주시 다문화가정 100세대에 세탁기를 선물했다.

이전 세탁기 나눔에는 호남권자원순환센터, 수도권서부,북부자원순환센터와 영남권자원순환센터, 씨엔텍코리아, 폐가전 문전수거 업체인 RCI 등이 참여했다.

이전 세탁기 나눔에는 호남권자원순환센터, 수도권서부,북부자원순환센터와 영남권자원순환센터, 씨엔텍코리아, 폐가전 문전수거 업체인 RCI 등이 참여했다.

한전 남원지사,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위생용품 전달

한전 남원지사는 21일 남원시청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SNS,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갈창 생리대’와 같은 관내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아픔을 나누고자 추진된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여성용품은 3개월분 250세트로 구성됐으며 이날 전달식을 가진 후 남원시청에서 수령 방법을 파악한 후 8월 중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만11세~18세인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250명이며, 이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대상과 지역 아동센터 및 방과 후 아카데미 등 시설 이용 여성 청소년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랑의 삼계탕 행사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 사육계 봉사단은 21일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에 위치한 인보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사랑의 삼계탕’ 행사를 진행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중부맞이 행사로 사육계 봉사단 15명이 참여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삼계탕을 130여명 어르신께 제공하고 복지관에 필요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지역 독거노인과 무더위에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께는 일일이 가정까지 방문해 ‘사랑의 삼계탕’을 배달해주는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법률 원사 선혜스님, 부안군 나누미근로자복지재단 정기회원 가입

경기도 구리시 소재 법률 원사 회주 선혜스님이 부안군 나누미근로자복지재단 정기회원(CMS) 회원에 가입했다.

선혜 스님은 지난 1970년 합천 해인사에서 일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1973년 효당 스님의 문하에서 다도에 입문했고 2004년 ‘서울문화’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후 현재는 석정원차회 원장, 반야다원 대표,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자 시인이다.

선혜스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모여 전국 최초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급이라는 거대한 일을 해낸 건 정말 아름다운 기적이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동참하게 돼 기쁘다”고 후원회원 가입 배경을 밝혔다.



김제예수사랑교회, 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필품 전달

김제예수사랑교회(목사 최정호)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50만원 상당의 라면과 화장지를 김산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해 훈훈함을 전했다.

지난 20일 김제예수사랑교회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라면과 화장지를 전달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주민을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힘을 더해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김제예수사랑교회는 지속적으로 불우이웃돕기와 김제사랑장학금 기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무주경찰서, 구천동 여름파출소 개소식

무주경찰서(서장 나영민)는 지난 20일 구천동 임시파출소에서 덕유산국립공원, 119구급대, 자율방범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파출소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여름철 구천동 계곡 등 피서인파가 급증하는 지역에 피서객 범죄예방 활동으로 무주를 방문하는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쉬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소한 여름파출소는 직원 1명과 대원 6명이 배치되어 지난 20일부터 내달19일까지 약 31일간 운영하면서 범죄예방은 물론 인명구조, 청소년선도 등 활동으로 피서객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덕진서 진북파출소, 주요 침수피해 우려지역 안전점검 실시

전주덕진경찰서 진북파출소는 21일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진북동 쌍다리 일원 전주천과 어은골 절개지를 중심으로 하천 범람 우려 및 낙석 우려 점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특히 전주천 쌍다리 일원은 지난 6월 9일 유관기관 합동으로 풍수해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침수예방을 위한 배수펌프 공사도 진행중인 만큼 주기적 안전점검이 필요한 곳으로 관내 일일 거점근무 지정하고 면밀한 점검을 실시했다.

최관장 진북파출소장은 “관내 노후화된 건물 및 교량, 축대, 담벼락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112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련부처와도 협조체제를 구축해 2차·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7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장 조봉성 부회장 김승근 전무 겸 편집국장 김관춘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388-6874	남원지사 632-3886	고창지사 563-6888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8-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8-8855	진안지사 433-3084
호지지사 010-6645-9355	광복지사 253-688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9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www.namwon.go.kr

광한루원, 구룡계곡, 춘향남원, 남원의 여름, 지리산둘레길, 백두대간 트리하우스, 월매를 사랑한 놀부, 남원에촌

맛과 멋이 특별한 남원인의 여름

지리산 물소리에 몸과 마음이 시원~ 우리 가락에 어깨가 들썩입니다

남원시